

삼성 첨단물류센터 · 터미널 도시재생 조성 ‘착착’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다운 이야기 나누는 민족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풍성한 차례상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고향사랑이 빠질 수 없다.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여러 성과를 내며 힘찬 도약에 나서고 있다. 고창군의 2024년 새해 주요사업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심덕섭 고창군수

전략사업 본격화

▲전북 최초 삼성전자 첨단 물류센터 착공(허반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세계 서열 1위 삼성전자의 사업장이 들어선다. 고창군은 지난해 9월 심덕섭 고창군수와 김관영 도지사, 삼성전자 관계자가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고창군은 올 상반기 건축설계 및 인허가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호남권)드론 통합지원센터 착공(상반기)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184-4번지 일원에 8만9560㎡(약 2만7000평) 규모로 드론통합지원센터(비행시험·드론자격·드론교육), 활주로(200m×20m), 및 실기시험장(90m×40m×4면) 등을 구축한다. 총사업비는 375억원에 달한다. 고창군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 및 관련부서 협의 중이다.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와 실시계획을 마무리한 후 2024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터미널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세부설계 착수)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는 2022년 12월 군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다. 지하2층 지상1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터미널과 청년창업공간, 유기농연구소 등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삼성스마트허브단지 유치



터미널 도시재생 조감도



고창종합테마파크 조감도

고창 드론 통합지원센터착공
용평리조트 종합테마파크 조성
농촌협약·스타마을 공모 본격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예산 국회서 최종 승인
군, 김치산업 육성 ‘한발짝’
주요농산물 최저가 보장기금
농촌경제 지탱 보루 역할 기대



기업유치 추진상황 설명회

갈 예정이다. 또한 올 연말까지 용평리조트 내에 홍보관을 오픈하여 2025년부터 리조트 사전정착을 추진하고 이듬해 계약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최소 300실 이상의 중대형급 숙박시설이 조성되면서, 고창군의 숙원사업인 ‘체류형 생태관광지 조성’에 한발짝 다가갔다.

▲농촌협약·스타마을 공모사업 본격화

‘농촌협약’은 총사업비 589억원이 투입돼 면소재지와 각 마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교통, 복지, 의료 서비스 등 주민들이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제공받게 된다. 특히,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농촌관광 스타마을 사업을 통해 고창의 자랑인 북분자를 활용해 와인리지를 조성하고, 주변마을과 함께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어간다.

농촌 현안과제 해결

▲김치원료 산업화와 시장선도를 통한 브랜드화

고창군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예산 290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2027년까지 고창군에 저온저장고 20동(75평형)과 절임가공시설을 구축한다. 사업은 최근 김치소비 환경이 김치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완제품 소비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가공공장에 사시사철 안정적인 원료를 납품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 김치원료의 원료거점을 구축해 김치 양념산업 육성, 식자재 유통, 홍수출하기 농산물 물류 수급조절 등 고창군의 현안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기 가장 좋은 도시

고창에선 지난해 600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해 고창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도왔고, 지역경제의 소비와 생산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는 법무부로부터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16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허가를 받았다. 3월에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도 준공해 좀 더 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다. 소득관련, 올해부터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 보장기금’이 본격 운영된다. 농업경영비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촌경제를 지탱할 최후의 보루 역할이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의 빠른 성장과 역동성, 높은 주민의식과 청정자연환경에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며 “올해는 군민모두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향해 부지런히 뛰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2024 부라보 부안라이프!

2024 甲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堅忍創來

경 인 창 래

어려움은 현재의 기회로!
미래 부안 100년 도약을 향해 푸른용과 함께 비상하겠습니다